



제 **3**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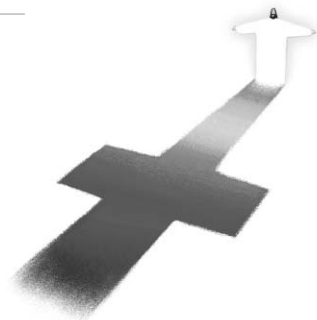
남미 · 아시아

7과 남미(브라질)

8과 인디아

9과 싱가포르

남미(브라질)



목도 다함께

찬송 268장 (온 세상 위하여)

기도 맑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8:18-20

참고성경 사도행전 17:16-34

요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상)

말씀증거 사회자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가톨릭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이 과거 포르투갈의 침략으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공식적으로는 가톨릭 국가이지만 개신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처음 감리교회가 전파된 것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빠른 1836년입니다. 가톨릭의 지배 아래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개신교가 전해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게 되고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함으로 포르투갈 왕가가 브라질로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왕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디 조아오(D. Joao) 6세가 외국상인들에게 브라질항을 개항함으로써 처음으로 개신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리오 데 자네이루 항구에 처음으로 입항한 감리교 선교사는 파운틴 피츠(Fountain Pitts, 미국 테네시 주)였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의 감리교 선교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이 선교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확인하고 미 선교부에 보고했고, 이에 저스틴 스폴딩(Justin Spaulding) 가족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에 도착하여 바로 공중예배를 시작하였고 주일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얼마 후 키더(Kidder)와 그의 아내 썬시아(Cinthia)가 파송 되었는데 이들은 브라질 전 지역을 다니며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관습 및 예절 등 역사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황열병(yellow fever virus)으로 죽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는 실로 위대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선교사들이 황열병과 같은 풍토병과 전염성

질병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공황의 여파로 선교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컸습니다. 적대감을 갖고 있던 가톨릭의 핍박, 당시만 해도 브라질 헌법에 의해 제한 받은 종교적 자유, 선교사들의 죽음과 잇단 귀국 등으로 브라질에 감리교가 전파되는 첫 번째 시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1841년).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1867년도에 브라질 선교가 다시 재개 되었는데 이후 아주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감리교회가 뿌리내리게 하고, 다른 선교사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주니어스 뉴먼(Junias Newman)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 남부지역 사람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브라질로 이민을 올 때에 뉴먼은 남감리교회의 파송을 받고 1867년 8월에 리오 데 자네이루에 도착하였습니다. 뉴먼 선교사는 브라질에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의 딸인 안네(Anne)와 메리(Mary)는 오 콜레지오 페라씨까바(O Collegia Piracicaba) 학교의 전신이며, 지금은 유니맵(Unimep, 페라씨까바나 감리교대학)으로 개명된 학교를 세웠습니다. 뉴먼 선교사는 1871년 8월 셋째 주에 첫 감리교회를 조직했고(당시 9명의 멤버) 미국에 선교 협력자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 온 선교사들은 랜슨, 제임스 케네디, 마르다 와츠(J. J. Ranson, James L. Kennedy, Martha Watts) 그

리고 코저(Koger) 부부인데 특별히 이 기간동안 감리교 선교는 교육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가인 마르다 와츠(Martha Watts)는 안네(Anne)의 죽음으로 중단되었던 학교사역을 이어 받아 오 콜레지오 페라씨까바노(O Collegia Piracicabano)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코저도 교육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랜슨(Ranson)은 주이즈 데 포라(Juiz de Fora)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1886년 1월에 “메토디스타 까톨리꼬”(Metodista Catolico)라는 제1호 신문을 창간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엑스포지토 크리스타오”(Expositor Cristao)라고 불리는 간행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위한 정기간행물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이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베르나르도 데 미란다(Bernardo de Miranda)와 그의 형제 루드제로(Ludgero), 펠리페 리알레 데 카발로(Felipe Reale de Carvalho)와 저스티아노 데 카발로(Justiano de Carvalho)들은 첫 번째 평신도 설교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주이즈 데 포라 지역에서는 평신도들이 브라질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성 평신도 사역자들도 나타나 가정을 방문하며 함께 모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감리교 역사는 대단히 풍성하며, 방대한 지역 나뭇대로의 중요성과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브라질 남부 지역인 리오 그란테 도 술(Rio Grande do Sul)에 뿌리를 내린 감리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 중의 한분은

조아오 꼬레아(Joao Correa)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는 1885년 3월 21일에 브라질 남부지방의 순회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로 이주하여 1885년 9월 27일 가정에서부터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남녀 공학의 학교를 세웠는데, 1886년말에 남녀 187명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4개의 학교에 400여명의 학생의 등록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교사의 가족들은 우루과이 감리교회로부터 왔는데, 우루과이 감리교회는 미국 남감리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남감리교회는 신학적으로 훨씬 개방되어 있었고,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 들어온 감리교회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남부지역에 들어온 감리교회는 타 지역에 비해 개방된 신학사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의 식민지역(이탈리아, 독일)에 선교 확장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브라질 감리교회의 초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박해 속에서 예배는 예배당 없이 사적인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기관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극단적인 가난 등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고 감리교회는 점차 브라질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말에는 브라질 감리교회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자립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0년도 게투리오 바가스(Getulio Vargas)에 의해 주도된 자립정신은 당시 브라질 국민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엑스포지토 크리스타오(Expositor Cristao)의 편집자인 구아라시 실베이라(Guaraci Silveira)는 이것을 브라질 감리교회가 미국에 의존하는 영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의 발로 서려고 노력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자립은 단순한 독립이나 스스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로서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선교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교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브라질 교회는 이미 국내 각처에 미국인이 아닌 브라질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든든한 리더들을 확보했습니다. 1890년에는 선교를 위하여 자국 내에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신학교가 주이즈 데 포라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1930년도 이후에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교회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감리교회가 자립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교회내의 조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감독은 미국에서 파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일시적으로 선교현지를 방문해서 배로 여행하게 됨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감독직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거주하며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국내사정을 잘 아는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미국선교사 타복스(Tarboux)가 초대감

독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34년에 세사르 다코르소 필로(Cesar Dacorso Filho)가 브라질 사람으로는 처음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브라질 감리교회는 “이그레자 메토디스타 도 브라질”(Igreja Metodista Do Brasil)이라는 명칭 아래서 “레 지오에스 에클레시아스티카스(Regioes Ecclesiasticas)”라고 명명하고, 3지방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초창기에 중부, 동부, 남부 3개 지방으로 나눈 것처럼, 노르테(Norte, 북부), 술(Sul, 남부), 세트랄(Cetral, 중앙) 3개 지방을 구성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40년 후에 브라질 감리교회는 자립하게 되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인 아마존 지역에도 약 1세기 전인 1886년도에 감리교 선교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주의 수도인 마나우스와 썬파랭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선교부는 세 사람을 보냈는데 마르코스 카버(Marcos E. Carver)목사와 스미스(Smith) 목사 부부가 1886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1897년까지 계속되다가 1897년 3월 27일에 본국으로 돌아감으로 약 1세기 동안 방치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세기 후인 1988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최종철 감독회장과 브라질 감리교회 넬슨(Nelson) 감독이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이성전 선교사를 아마존 지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는 1990년 12월 23일 세든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감리교회의 아마존 선교를 시작하여 초창기부터 교회개척과 의료선교, 교육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출

말하였습니다. 즉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선교 정신처럼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을 지향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마나우스에는 10개 처에 교회가 세워졌고, 2곳의 진료소, 2개의 학교, 1곳의 수양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강 유역을 따라 강변마을 사람들에게 진료 및 교육의 혜택을 주며 돌보는 병원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은 아직 자립되지 못한 선교연회 중에 한 곳이지만 마나우스 지역뿐만 아니라 호라이마주의 수도인 보아비스타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근 브라질 교회는 사회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마 세마나 파라 지저스”(Uma semana para Jesus-예수를 위한 한 주간), “프레스 디아 파라 지저스”(Tres dia para Jesus-예수를 위한 3일), “줄로 파라 지저스”(Julho para Jesus-예수를 위한 7월) 등 각종 슬로건을 걸고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자원 선교사(평신도)들이 나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각종 환자진료, 예방접종, 이발,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지도, 여름성경 학교, 예능지도, “체스타 바시카”(Cesta Basica-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기본식량) 나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키나 데 카파키타카오”(Oficina de Capacitacao-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봉사하기)라는 활동으로 컴퓨터 강습, 생활상담, 어린이탁아소 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하여 교회내의 평신도들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회,

세미나, 강단교류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감리교회는 그들의 대륙적인 기질처럼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6개의 자립연회와 2곳의 선교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수로는 약 1200여개의 교회와 1500여명 정도의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언어권인 포르투갈, 잠비아, 모잠비크 등 여러 나라들과 교환목회(Intercambio)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브라질 감리교 선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2) 아마존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찬 송 255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인디아



목 도 다함께

찬 송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기 도 맑은 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4:18-19

요 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말씀증거 사회자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의 총책임을 맡겨 파송했던 토머스 코크 박사가 미국 현지에서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6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소명으로 인디아 선교를 하기 위하여 다시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813년 12월 30일 토머스 코크 박사는 6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대동하고 포츠머스항을 출발하였습니다. 일행은 1814년 6월 29일 당시 인디아령이었던 실론(Ceylon) 남쪽 갈레(Galle)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선상에서 세상을 떠난 토머스 코크 박사를 대신하여 인디아 실론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갈레에서 최초의 실론 지방회가 열렸고, 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제임스 린치는 수도 콜롬보에, 나머지 선교사들은 북으로는 자푸나, 동으로는 바티칼로아, 남으로는 갈레로 각각 선교지를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지금도 이들이 입국한 1814년 6월 29일을 선교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콜롬보 부근 페타에 스리랑카 최초의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디아 본토 선교가 시작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1856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국 감리교회가 아닌 미국 감리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디아 감리교회의 첫 선교사는 윌리엄 버틀러였고, 이어서 윌리엄 터번 목사와 이사벨라 터번, 클라라 스웨인 간호사 등이 여기에 합류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복음을 아웃카스트 사람들인 달릿(Dalits)에게 전하였습니다.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억눌린 달릿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었고 공식 활동도 불가능한 불가촉천민(Untouchability)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인디안 달릿을 상대로 감리교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870년 이사벨라 터번은 최초의 여학교를 세우고 달릿 교육선교를 개시하였으

며, 클라라 스웨인 선교사는 여기에 부응하여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뭄바이 근교 베레일리(Bareilly)에서 감리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864년에는 이러한 선교기지(Mission Station)가 다섯 개나 되었고, 1870년 제임스 터번 선교사는 미국의 유명 부흥사 윌리엄 테일러를 초청하여 남인디아 전역에서 영적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뭄바이를 시작으로 벵갈로어 마드라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감리교 부흥운동을 통하여 개종자를 얻고 영혼구원과 교회개척을 추진하였습니다.

1893년 윌리엄 테일러는 남아시아 선교권을 12개 언어로 구분하였습니다. 동쪽의 마닐라를 시작으로 서쪽 파키스탄의 라호레까지, 그리고 남쪽은 마드라스를 잇는 광범위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감리교회 선교를 획정 짓고 일하였습니다. 당시 교인은 11만 1654명이었습니다. 1904년 남아시아 연회는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분리시켜 연회는 13개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인디아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로는 호머 스톤츠 선교사와 훗날 선다 싱을 후원하고 전기를 집필하였던 파커(E. W. Parker)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대규모 개종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디아 감리교회를 인도한 피켓트(J. W. Pickett) 박사가 있습니다. 1930년 인디아 감리교회는 자스완트 라오 치탐바를 인디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939년 인도 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는 감리교 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와 합동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인디아는 일곱 개 나

라로 나누어 졌습니다. 이때 인디아 감리교회 역시 파키스탄 감리교회와 분리하였고, 인터스강 유역 연회는 카라치 선교연회가 되었습니다.

1956년 인디아 감리교회는 교회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아시아 전 지역이 선교 대상이었던 100년간은 권역내의 스리랑카 교회를 필두로 하여 인디아, 파키스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1920년 창립되었던 감리교 선교회는 인디아를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히말라야의 네팔과 인도네시아의 사라왁과 태평양의 피지에까지 선교하였습니다. 이곳은 오늘날도 영국 감리교 세계선교부 (Church World Office)의 지역입니다. 1960년-1961년 사이 안다만(Andaman) 선교지는 버마 연회에서 분리되어 남아시아 연회(MCSA)에 소속 되었습니다. 마침내 1976년 인디아 감리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지원체제를 벗어나 자립교회가 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인디아 교회 지원 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981년 1월 7일 인디아 감리교회는 남인디아 마드라스에서 총회를 갖고 독립교회가 되었으며, 1982년 교리와 장정을 출판하였습니다. 인디아 감리교회는 이제 6개 연회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이 교회를 치리하며 4년에 한번씩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인디아 감리교회의 조직으로는 ‘감독협의회’(Episcopal Conference)라고 부르는 연회가 있는데 현재 뱅갈로어 뭄바이 델리 하이드라바드 럭나우에 있습니다. 또한 연회 밑에는 2개의 지방연합회(Regional Conference)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인디아 감리교회는 집사(Deaconess)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총회가 감독을 통해서 선출하는 평신도 대표들로서 안수 받은 목사들처럼 지방연합회에서 전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영국 감리교회의 평신도 설교자(Lay Preacher) 직분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전용되어 평신도 전문사역자로 정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디아 감리교회(MCI)는 현재 65만 6499명의 교인이 있고 총 2460개의 교회와 2156명의 안수 받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10명의 여자목사도 있습니다. 이제 인디아 감리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지배를 벗어나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선교재원을 발굴하여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선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세계선교부(GBGM)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디아 교회협의회(INCC)와도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디아 감리교회는 지금 디지털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선교의 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선교의 영역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고 있는 남인디아의 벵갈로어와 안드라프라데시의 하이드라바드에 있는 감리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앞서가는 선교인맥을 확보하고 이들을 이어주는 고속정보망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벵골(Bengal) 지역의 지방연합회를 통해서 파쿨에 있는 학교를 대안학교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베레일리에 있는 아선술 학교를 지원하여 민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리교 선교는 영육선교를 포괄하는 사회선교의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감리교회는 아직 식민지 시대의 교회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적·물적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진출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혈연·지연·학연의 틀에 얽매어 교회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일부 지도층들이 지도력을 독점하고 있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웃카스트 ●

인도의 신분계급의 하나. 카스트에 따른 인도인의 신분은 브라만(승려),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샤(상인), 수드라(피정복민 및 노예, 천민) 등 4개로 구분되며 최하층인 수드라에도 속하는 않는 불가촉천민(Untouchability)이 있다. 불가촉천민은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또한 ‘카스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 아웃카스트(Outcaste)라 불리기도 하며, 스스로를 ‘핍박 받는 자’라는 뜻의 달릿(dalit)이라 부르기도 한다.

불가촉천민은 계급(카스트)제도 밖의 구성원으로 인간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무엇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에 종사해왔다. 일반인들은

그들과 접촉하거나 심지어는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오염된다고 생각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그들을 보기만 해도 오염된다고 생각했기에 불가촉천민은 밤에만 활동해야 했다. 또한 그들에겐 사원 출입이 금지되고, 마을 공동우물의 물을 길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고, 버스나 기차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극단적 차별은 19세기 말까지 성행했다. 인도 정부는 1955년에는 법률로 이들에 대한 종교적·직업적·사회적 차별을 금지했으나 아직까지 인도를 유지하는 주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신분제도가 엄격한 인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봅시다.
- 2) 식민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인디아 교회를 위하여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토의해 봅시다.

찬 송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싱가포르



목 도 다함께

찬 송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기 도 맑은 이

성경봉독 사도행전 13:1-3

참고성경 사도행전 19:1-10

요 절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행 13:2)

말씀증거 사회자

1. 싱가포르의 배경

싱가포르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비슷하며 인구는 420만 명이고, 그 중에 외국인이 약 100만 명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가 공용어입니

다. 다인종으로 형성된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유럽인, 유럽 아시아 혼혈인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76.8%가 중국인이며 그들이 정치와 경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약 140년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정부조직은 대통령제이지만, 사실은 수상에 의하여 모든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의 정치적인 안정은 지난 40년간 단지 3명의 수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토대로 중단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국민총생산량(GNP)이 약 27,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종교분포는 매우 다양하여 중국인은 불교·도교(51%), 말레이인은 이슬람교(14.9%), 인도인은 힌두교(4.0%)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 기독교인은 대부분이 중국인들로서 현재 15%에 이르렀습니다. 최근(15년 동안) 기독교의 성장은 1990년도에 전체 인구의 10%에서 2005년 현재 15%에 이르렀습니다.

2. 싱가포르의 위치

1) 감리교의 역사와 교세

120주년을 기념하는 싱가포르 감리교회는 말레이시아와 하나의 감리교(한 명의 감독)로 형성되어 있다가 1976년부터 각각 독립되었습니다. 교세는 44개의 교회가 있으며 교인 수(장년 입교인)는 약 3만 2000명에 이릅니다. 장년 입교인들 중 약 80%

는 영어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 16%는 다양한 중국어(만다린, 광둥어, 후키엔어 등) 예배 교인이고, 4%가 인도 타밀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개신교를 주도하는 가장 큰 교단인 싱가포르 감리교회는 국가를 향하여 때때로 개신교를 대변하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어 교육을 받은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중상류에 속하며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 트리니티 테올로지칼 칼리지(Trinity Theological College)는 5개의 교단이 연합으로 운영하지만 감리교회가 주도하고 있고, 감리교단의 안수를 받으려면 이 신학교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비교해 볼 때,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므로 농촌이 없어 미자립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들의 정서와 형태는 한국의 도시교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감리교회의 국내 선교

선교 초기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선교가 이루어져서 감리교의 이미지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 속에 기독교의 영향이 나타나도록 이념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장 속에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선교는 사회 교육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현재 감리교 계통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영국의 영향으로 중학교는 4년제로 세컨더리 스쿨(Secondary School)로, 고등학교는 2년제로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로 불림)가 13개 있는데,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선교는 전도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인종,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부터는 정부에 등록된 공식적인 감리교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14개의 기관(노인정, 극빈자들을 위한 집, 가정상담센터, 어린이, 청소년 상담센터)이 싱가포르 전역에 소재해 있고, 매월 3000여 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 감리교의 해외 선교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안디옥으로 지칭하기 시작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 교회들이 경험한 교회 부흥의 영향이 싱가포르에도 일어났습니다. 감리교단 정책으로 추진하는 해외 선교는 현재 감리교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5개국(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중국)으로 초점을 맞추고, 2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개 교회들은 이들 5개국에 국한하지 않고 13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싱가포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싱가포르 개신교회 총 수가 400여 교회인데 파송된 선교사 수도 400여 명이 되는 것을 보면 거의 1:1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싱가포르 감리교회의 130여 명의 선교사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 감리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지역중심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 지리적으로 싱가포르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비행기로 3-4시간 안에 10여개 국가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싱가포르는 정치와 경제적으로도 동남아 지역의 중심이 되어있습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23%에 이르는 약 100만 명이 외국인이란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싱가포르의 독특함을 말해줍니다. 동남아시아 10여개 국가는 싱가포르를 정치, 경제, 교육면에서 우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차이나(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거쳐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까지 약 2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싱가포르의 선교 대상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역량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1) 정치적으로 아시아에서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고, (2) 경제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향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진행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3) 교육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싱가포르에 유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4) 문화적으로 평상시 다문화(중국 문화, 말레이시아 문화, 인도 문화) 속에 삶을 영유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람들은 선교지를 향한 초문화적 적응훈련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5)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언어(중국계는 만다린, 말레이계는 말레이어, 인도계는 타밀어)를 구사하는 언어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사람들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선교할 준비가 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보다 더 실제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지를 향한 뜨거운 자세는 싱가포르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필자는 싱가포르에서 약 10년의 선교경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왜’, ‘어떻게’ 이 시대의 세계 선교에 주역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에서 한국 다음으로 개신교가 강한 싱가포르 교회들도 한국교회의 영성, 열정, 교회 성장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교회는 적어도 “교회에 대한 것”들은 한국교회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열정과 모델도 배우려고 합니다.

3. 싱가포르 감리교회의 선교 비전

1)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형성과정

네 개의 나라(대한민국,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에서 파송 받은 감리교 선교사들은 캄보디아에서 흩어져 사역하다가 하나의 감리교로 태동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탄생시키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싱가포르 감리교회는 이와 같은 선교의 연합에 대해서 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로는 태국이며, “태국 감리교회”의 탄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팔에도 하나의 “네팔 감리교회”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싱가포르와 한국이 동반자적인 관계가 될 때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아시아 감리교회 협의회에서의 동역관계

아시아 감리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룬 사건은 지난 2002년에 결성된 “아시아 감리교회협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협의회가 태동되었지만 싱가포르 감리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매년 열리던 “아시아 감독 협의회”가 선교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한국 다음으로 아시아 선교에 열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감리교회협의회 회칙 제1조 1항은 “아시아 선교를 위한 협력을 도모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감리교회는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인 장점을 영혼구원을 위한 세계 선교에 끊임없이 활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싱가포르 교회와 동역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에 좋은 협력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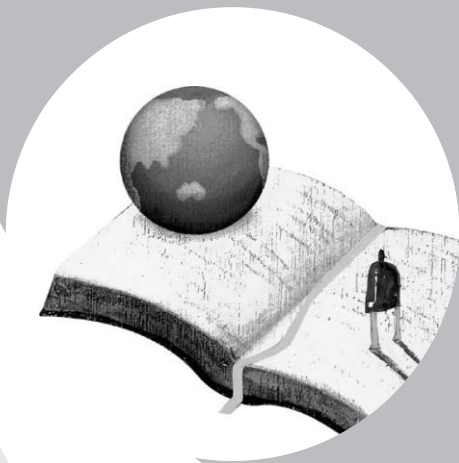
생각을 위한 질문

- 1)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을까요?
- 2) 바울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기에 2년 만에 아시아(오늘날 터키의 서부지역-한국과 땅의 크기가 비슷함)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찬 송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제 **4**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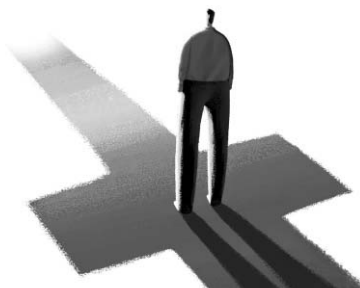
아시아

10과 스리랑카

11과 인도네시아

12과 필리핀

스리랑카



목 도 다함께

찬 송 273장 (저 북방 얼음산과)

기 도 맑은 이

성경봉독 사도행전 16:6-10

참고성경 이사야 2:2-4

요 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9)

말씀증거 사회자

2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리랑카의 정식 국명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입니다. 스리랑카는 적도에서 북쪽으로 5도, 인도 대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남한의 3분의 2정

도의 크기인 스리랑카 총면적은 2만 5000 평방 마일로, 종으로 270마일, 횡으로는 약 140마일로서 중앙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해안 지역으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전형적인 섬나라입니다. 스리랑카의 뜻은 스리(Sri)는 ‘아름다운’, ‘성스런’ 이라는 뜻이며, 랑카(Lanka)는 ‘땅’, ‘나라’ 를 의미합니다. 스리랑카의 인구는 약 2000만 명 정도이고, 그 중 불교를 믿는 73% 가량이 싱할라족이며, 힌두교를 믿는 스리랑카 타밀족이 13%, 인도 타밀족이 6%, 이슬람을 믿는 아랍계 혼혈 타밀족(무어인)이 7%, 포르투갈계 혼혈인(버거족), 말레이족, 베다족 등이 1%입니다. 싱할라족은 주로 남서쪽에 위치하여 살고 있으며, 타밀족은 북동쪽에 주로 모여 삽니다.

1. 스리랑카 감리교회의 역사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1884년 영국의 토머스 코크(Dr. Thomas Coke) 선교사의 순교로 세워진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토머스 코크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의 목사였고 웨슬리안 감리교회의 감독으로서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기독교를 변증하였습니다. 65세로 은퇴한 고령의 목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였습니다. 영국 감리교회 연회에서 그가 고령이고 선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선교사 파송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고 본인의 재산을 다 팔아두 척의 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배로 그를 따르던 6명의 젊은

목사들과 함께 항해를 하던 도중 스리랑카 땅을 밟아 보기도 전에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지날 즈음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선상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스리랑카 남부 웰리가마 항구에 도착한 6명의 영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제비를 뽑아 스리랑카 전국 5개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스리랑카 최초의 서구식 학교와 웨슬리 인쇄소를 설립하여 스리랑카어 사전과 각종 국정교과서를 인쇄하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100여개의 교회와 160여개의 학교를 세우고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사회주의화 되면서 2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모두 국유화하게 됨으로 영국 감리교회의 선교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 스리랑카 감리교회의 과거

스리랑카는 1948년 2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포르투갈 150년, 네덜란드 150년, 그리고 영국 150년 등 모두 450여년 동안 기독교 서구 열강들에게 식민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서구식 민주주의가 발전한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의 정치형태를 가지고 대통령과 수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 싱할라족과 타밀족간의 내전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골이 패어 있습니다. 기나긴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반서구, 반기독교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한창 성장하고 있던 기독교에 탄압이 거세게 불고 있기도 합니다. 서구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이 스리랑카에 유입되고, 1964년 영국 감리교회로부

터 자치 연회를 시작한 후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형식만 남게 되어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싱할라족과 타밀족간의 극심한 내전으로 인해 많은 스리랑카 감리교도들은 피난민 신분으로 해외 이민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 파송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목회자들은 장기적인 목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안일한 목회와 본부에서 받는 사례비에만 의존하여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스리랑카 감리교회의 현재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교회 전통을 이어 받아 총회(Conference)에서는 5년 임기의 전임감독(President)과 평신도가 맡는 1년 임기의 부감독(Vice President)을 선출합니다. 총회 회원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Society)은 4-5개의 교회로서 목사 2-3명과 함께 평신도 설교자(Lay Preacher)들이 지방 내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주일 설교를 비롯한 지방 행사 등을 통하여 활발한 복음 전도운동과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개인구원의 토대 위에 사회구원을 중요시 하는 웨슬리의 구원론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감리교 본부에서는 전도국(Department of Evangelism) 산하에 통신 성경공부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싱할라족을 위한 “칼 엘리야 신학교”(Evangelism Training College-Kal Eliya)와 타밀족을 위한 “칼쿠다 신학교”(Evangelism Training College-

Kalkudha)를 세웠습니다. 이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도처를 포함해 약 200교회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목사 100명과 전도사 100명으로 교역자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사라졌던 속회 제도가 되살아나기 시작하여 해마다 5-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책임국(Department of Social and Responsibility)을 두고 외국과 국내 감리교회의 후원을 받아 고아원(Homes and Orphanage) 21개, 유아원(Pre School) 37개, 무료 급식소(Nutritional Feeding Center) 25개, 양로원(Elders Home) 6개, 감리교병원(Hospital) 1개, 무료진료소(Free Medical Clinic) 8개, 기술교육원(Vocational Training Center) 3개, 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Street Children's Program) 1곳 등을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4. 한국 감리교회와의 관계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스리랑카에 1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감리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개척, 신학교 운영, 문서출판, 어린이 사역 등의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매해 열리는 연회에 한국 감리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영국 감리교회와 함께 스리랑카 감리교회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26일 주일 아침에 아시아에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3만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기도와 격려를 했을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도착한 지역에 세워진 웰리가마 교회(Welligama Church) 복구와 이동병원을 설립할 버스와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하여 줌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후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땅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종족들 간의 분쟁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족속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사이의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우리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복음을 동시에 선포하는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던 토머스 코크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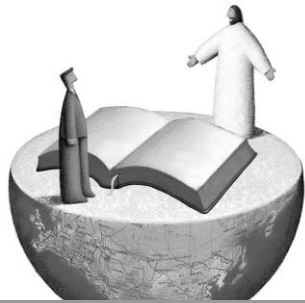
- 1) 2차 세계대전 이후 종족 간, 종교 간의 갈등 및 내전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존 웨슬리의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의 전통을 온전히 이어 받아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찬 송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인도네시아



목 도 다같이

찬 송 273장 (저 북방 얼음산과)

기 도 맑은 이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9:19-23

참고성경 사도행전 16:6-10, 사도행전 1:8

요 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

말씀증거 사회자

1.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는 1만 366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자야와, 자바 등 다

섯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도 상에 펼쳐져 있는 열대국이고, 면적은 남북한의 9배입니다. 인구는 2억 1500만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인도네시아 국민은 250여 종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300개 이상의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늦습니다.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등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국민의 87%가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인은 10% 내외입니다. 통화 단위는 루피아(Rupiah)이며, 1998년 외환위기를 당하여 타격을 심하게 받아 지금까지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181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세기 말부터 1942년까지 35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다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1945년 8월 17일에 독립하였습니다. 현재 제6대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역사

토머스 코크(존 웨슬리의 오른팔)가 1811년에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오다가, 도중에 사망하여 감리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데니스와 웨스트(싱가포르 감리사)를 통하여 보고르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페낭의 피켓 감리사가 메단에 살로몬을 파송하여 수마트

라 지역의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922년 첫 감리교회 건물(메단의 글로리아 교회)이 세워졌고, 1928년 인력과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자바와 칼리만탄 지역의 선교를 철수하고 수마트라 섬에 집중하였으므로 메단이 감리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51년 교역자를 배출하는 첫 신학교(Sekolah Alkitab)가 생겼습니다.

1964년 특별 연회에서 인도네시아 감리교회가 자치를 선언했고 위스마르 빵가베안 목사가 첫 연회장이 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감리교 종합대학(현재의 UMI)이 설립되었고, 1983년에 연회가 두 개로 나뉘어 졌습니다. 같은 해에 인도네시아 감리교 신학대학(STT-GMI)이 메단 지역에 세워졌고, 1996년에 웨슬리 신학대학(STT Wesley)이 자카르타에 세워졌습니다. 한 명의 감독이 두 연회를 치리하다가 2001년에 두 개의 연회에 두 명의 감독을 두게 되었습니다. 메단을 중심으로 한 제1연회에 8개 지방,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제2연회에 4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1991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2005년 8월 현재 10가정의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3. 현재 교세 (2005년 8월말 현재)

인도네시아의 감리교 교세는 교인 수 12만 1357명이며, 교회 수는 722개 처입니다. 교역자는 497명이며, 신학대학이 2개이

고, 일반 감리교학교가 59개가 있습니다. 감리교 병원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주요 사역 및 사회구원을 위한 활동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의 주요 사역은 인도네시아 모든 주에 감리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와 협력하여 최근 15년 동안 300여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감리교가 들어오면서 중요시한 선교정책은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일반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도의 자유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기독교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어서 선교의 매체로써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연회 본부가 있는 메단에는 두 개의 감리교 종합병원이 있고, 감리교대학에는 의과가 있어서 의사를 배출해 냅니다. 무료진료를 할 때는 한국 감리교회에서 진료팀들이 와서 함께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에는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흘 동안 언청이 환자 8명의 시술과 900여 명의 다른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였습니다.

옴막 같은 곳에서 사는 교인이나 주민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빗물을 식수로 하는 곳과, 강물에 의존하는 농촌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공

급하는 일도 합니다. 어려운 교인들의 경제를 돕기 위해 지방별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팜 농장 개간을 돕거나, 돼지나 닭 등 가축을 공급하여 주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며, 기독교 VCD를 나누어 주는 일도 합니다.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나 주부들의 모임에 가입하여 마약 퇴치 등 주민들을 위한 계몽 운동, 의료팀을 통한 건강에 대한 계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내외의 여러 팀들이 협력하여 의료 사역과 재난재해 구호활동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감리회본부에서도 전국 감리교회들의 도움의 손길을 모아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윤연수 감독과 엄마리 총무 일행이 아체와 메단 등 피해 지역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지도자 및 현지 한국선교사와 협의하여 아체 감리교회 건축과 교인 주택 20가구를 건축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2005년 10월 인도네시아 총회 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주택 건설과 어부들을 위한 선박구입을 위한 지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사업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도를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인들의 변화된 생활을 통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는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감리교회가 인정받으며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학교들은 믿지 않는 주민들

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결론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교인들은 바깥 종족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니아스 종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파 교단보다는 종족 교단들이 우세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그 속에서 모든 종족을 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는 “민족을 섬기기 위해 하나가 되자”(Bersatu melayani Bangsa)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에 감리교회를 세운다.”라는 선교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투리아(Marturia-증거), 디아코니아(Diakonia-섬김), 코이노니아(Koinonia-교제)를 통하여 그 목표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교회 건축, 교역자 주택 건축, 일반 학교 건축, 세미나, 미자립 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 신학생 장학금, 오토바이 지원, 그리고 중보 기도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 2) 국외 선교를 하지 못한다면, 국내 선교를 위하여 각자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찬 송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필리핀



목 도 다함께

찬 송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 도 맑은 이

성경봉독 로마서 12:1-2

요 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롬 12:2)

말씀증거 사회자

1. 필리핀 개요

715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은 남북한을 합한 크기의 약 1.5배 정도 되는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521년 3월 31일 세계 여행을 하던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세부(Cebu)에 도착하여 미사를 시작한 것으로 압제의 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98년까지 333년간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어 1941년까지 미국의 식민지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만 3년이 넘는 동안 일본에게 혹독한 시련을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독립국가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946년 로하스(Manuel A. Roxas)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이 집권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현재 필리핀 인구는 약 8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13번째의 인구 대국입니다. 현재까지 필리핀에는 대토지 소유주, 이른바 지방영주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의 약 6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 소작농으로 국민생활은 아직 어려운 편입니다.

국민의 약 74.2%가 가톨릭교인이라고 발표되고 있고 가톨릭 측의 발표에 의하면 이 중 약 7.5%만이 정규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가톨릭 문화권 안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약 17%, 이슬람교도 약 4.5%, 나머지는 이단교파, 무신론자, 불교, 무속신앙 신봉자들입니다.

2. 필리핀 감리교회

1) 시대적 배경과 전파

필리핀 내에서의 최초의 개신교 예배는 감리교 목사인 조지

스툴(George Stull)에 의해 1898년 8월에 인도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 8월 20일 필리핀 최초의 감리교 지방연회가 마닐라의 여학교 해리스 기념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연회는 ‘말레이시아 연회의 필리핀 지방’ (Philippine Islands District of the Malaya Annual Conference)이었습니다.

감리교가 들어온 이래로 장로교, 침례교, 회중교회, 연합형제단, 그리스도의 제자들, 기독교 선교사연합, 그리고 감독교회가 이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역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한 협조를 취하였는데, 그 결과 1901년에 협정을 체결하고 지역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루손 중북부와 남부 지역, 감독교회는 산악지방(루손 중북부), 장로교는 남부 루손 지역과 중서부 비사야(Visayas) 지방, 침례교는 동부 비사야 지방, 선교사연합은 민다나오 지역, 그리고 마닐라는 모든 교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독립이후 이 협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장로교,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연합형제단, 그리고 필리핀 감리교회는 오늘날 필리핀 연합기독교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 : UCCP)로 통합하였습니다.

2) 필리핀 감리교회의 성장

1900년 최초의 지방연회가 개최된 이래 꾸준히 성장한 감리교의 일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903년 지방연회에서 멜라우린 목사(감리사)는 50여 개의 지역에서 교회공동체가 조직되어 있

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각각 150명에서 1천명의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22개의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1909년 연회기록에 의하면 당시 마닐라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등 3개의 지방회가 있었고, 이 기간동안 감리교는 급속한 성장과 박해를 동시에 경험하였습니다.

① 발전과 성장이 계속된 필리핀 감리교 역사 속에 두드러진 2개의 교회가 바로 마닐라 소재의 낙스 기념교회(Knox memorial church)와 중앙교회(Central church)입니다.

② 1898년 스페인에 대항하여 일어난 필리핀 혁명은 필리핀 사람들의 종교와 정치에 대한 각성의 결과였습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민족주의의 흐름이 연합감리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어 ‘필리핀연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닐라 톤도에서 필리핀 감리교도 그룹은 필리핀 민족주의와 종교를 계승할 목적을 가지고 카토토히난(진리)이라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③ 니콜라스 자모라 목사는 미국 선교사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자모라 목사는 사소한 일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909년 2월 28일 톤도에 있는 성 바울 감리교회를 그만두고 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필리핀 복음기독교감리교(IEMELIF)를 설립하였습니다. 9명의 필리핀 연회원 중에 4명이 자모라를 따랐고, 121명의 지역 사역자 중에서 25명이, 그리고 마닐라 지역의 3만여 명의 회원 중에 1500명이 자모라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1914년 유행병인 콜레라로 죽을 때까지 새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필리핀 감리교회의 두 번째 분리는 1933년 팡가시난의 산 니콜라스에서 있었던 연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필리핀 감리교회는 시프리아노 나바로 목사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동안 분리 조짐이 있었는데, 결국 불미스런 일로 목회에서 쫓겨났던 멜레시오드 아르마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27명의 안수 받은 목사와 수명의 여집사, 그리고 여교사들은 연회를 탈퇴하여 그들 스스로의 모임을 갖고 미국의 모교회의 통제로부터 자유스러운 ‘필리핀 감리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948년 필리핀 감리교회는 장로교, 제사회, 복음연합형제단, 그리고 회중교회들과 연합하여 오늘날의 필리핀 연합기독교회(UCCP)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④ 1950년 당시 적은 인구밖에 없었던 민다나오에는 루손지역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일로카노인들이 그 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리교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늘자 그들은 북서필리핀 연회가 와서 그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카바칼과 코타바토의 감리교인들은 코타바토에 연합감리교회의 조직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1952년 총회는 이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승인을 하였습니다. 1952년의 북서필리핀 연회의 기록에 의하면 코타바토 한 곳에만 12개의 예배공동체가 5개의 예배처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민다나오는 비사야 지방과 함께 필리핀에 있어 연합감리교회의 한 지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 미국 감리교회와의 관계

미국 감리교회는 1968년 ‘연합감리교회’가 되었고, 역시 필리핀에서도 ‘연합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필리핀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필리핀 감리교회는 4년마다 열리는 미국 일반연회의 중앙연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은 필리핀 감리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1898-2005)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교회인 미국의 보호아래 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마다 한결 같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필리핀 감리교회의 독립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 감리교관련기관

- ① 유니온 신학교 - 다스마리나스, 카비테
- ② 필리핀 기독교대학(PCU) - 마닐라, 카비테
- ③ 웨슬리안 대학 - 카바나투안
- ④ 해리스 기념 여자대학 - 에르미타, 마닐라
- ⑤ 에베렌드 주니어 대학 - 산 마테오, 이사벨라
- ⑥ 메리 존스톤 병원과 간호학교 - 톤도, 마닐라
- ⑦ 고아원 - 타이타이, 리잘
- ⑧ 카파트리안 카운다단 재단 - 삼팔록, 마닐라
- ⑨ 감리교 전원 센터 - 키다파완, 코타바토

감리교 관련 기관 중에 ‘메리 존스톤 병원’ (Mary Johnston Hospital)은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수 사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원이 위치한 곳은 수도 마닐라의 톤도(Tondo)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계 4대 빈민가가 위치한 곳으로 가난과 질병, 범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메리 존스톤 병원은 이 곳에서 지난 100년간을 적자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5) 현재의 교세

필리핀 연합교회는 전국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3개 교구로 나누어 치리하고 있습니다. 3개 교구는 바교 교구(Baguio Episcopal Area), 마닐라 교구(Manila Episcopal Area), 다바오 교구(Davao Episcopal Area)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교구 산하에는 연회(Annual Conference)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며 바교 교구에 8개 연회, 마닐라 교구에 8개 연회, 다바오 교구에 5개 연회로 구분이 됩니다. 각 연회는 다시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 바교 교구는 22개 지방, 마닐라 교구는 23개 지방, 다바오 교구는 12개 지방 등 총 57개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감독이 치리하고 있고, 연회장 제도는 없으며 지방에는 전임 감리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회는 각 교구의 감독이 주관하고 감독 선출은 4년마다 개최되는 필리핀 중앙연회(Philippines Central Conference)에서 총대의 2/3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됩니다.

3. 결론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약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된 감리교 형제교단인 필리핀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자립의 힘을 키워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연합감리교회가 독립하여 자립, 자존, 자치하는 가운데 성장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연계된 선교 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하여 21세기 아시아 복음화의 역군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영적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2) 아시아에서 기독교 선교가 잘 이루어진 두 나라인 필리핀과 한국이 연합하여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찬 송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2006평신도
월례회공과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

발행일 / 2005년 11월

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TEL:(02)399-4346~8 / FAX : (02)399-4350

비매품